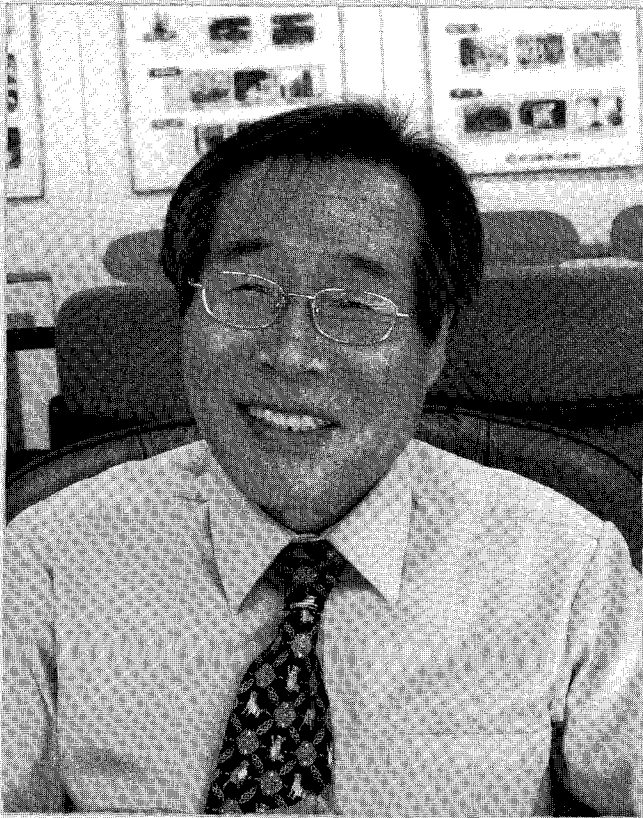


●●● 이봉덕 한국가금학회장

양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 이봉덕

1969. 7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학사, 석사)
1981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1994-1997 한국가금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1999-2004 한국가금학회 부회장 역임
2004.11-현재 한국가금학회장
1983-현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한국가금학회는 1973년 세계 가금학회(WPSA) 한국지부가 창립되면서 발족되었다. 이후 가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금학을 전공하는 학제, 연구계 그리고 양계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학회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83년 12월 정식으로 한국가금학회가 설립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가금학회는 현재까지 산학연의 화합을 꾀하고 가금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움 등을 개최함으로써 가금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가금학회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가금연구활동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해 11월 한국가금학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봉덕 회장을 만나 가금산업의 현황과 학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가금학회장으로 취임한 이봉덕 회장은 지난 1983년부터 충남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서 가축영양과 사료학 등을 가르치면서 후학들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지난 1983년 가금학회가 활발히 활동할 당시부터 학회에 참여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논문 발표는 물론 가금학회지의 편집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가금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생산자를 위한 학회 활동 전개

이봉덕 회장은 최근 양계산업이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극복했을때의 간절했던 마음으로 닭의해를 맞이하여 서로 화합하는 양계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와 관련하여 가금학회에서도 앞으로 생산자들로부터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근의 가금연구 활동이 신진 젊은 학자들에 의해 첨단공학적인 접근에만 관심있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생산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갈 뜻을 밝혔다.

가금분야의 질적 향상 꾀해

이 회장은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금학회지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학회지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으나 지난해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신청을 한 만큼 반드시 학회지가 권위있는 학회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등재 신청후 심사를 거쳐 3년후인 2007년에 한국학술재단에 인정을 받게 되면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가금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다. 이미 서울대학교 사이트를 이용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



▲한국가금학회 임원회의를 통해 가금학회 운영방안 및 양계산업의 현안문제를 논의

이 많아 금년 홈페이지 작업이 추진, 완성되는 대로 조만간 인터넷상에서 많은 학술관련 정보를 가금학회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산학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춘계심포지움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금년 사업중 이봉덕 회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는 4월 22일에 개최되는 춘계심포지움이다.

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가금산업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번 춘계심포지움은 '국내외 양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의 유명 학자는 물론 생산관련업계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양계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계기로 양계산업 발전을 꾀해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타축종의 경우 자조활동이 활발한 반면 양계업계는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장기적인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등 양계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